

전남 주요 도로 건설 속도 낸다

전남도, 도로분야 예산 5892억원 확보...광주~완도 2단계 착공 등 추진 서남권 혼잡 도로 확장 공사도 진행...접근성 향상·교통량 분산 등 기대

전남 발전을 이끌 주요 SOC 사업들이 본격화된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도, 광주~완도 고속도로,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여수~남해 해저터널 등 주요 도로 건설 예산을 확보해 올해 사업 추진이 속도를 내게 됐다.

올해 정부 예산으로 반영한 전남지역 도로 분야 사업비는 5892억원으로, 전년보다 788억원(15.4%) 늘어난 규모다.

광주~완도 고속도로의 경우 오는 2026년 완공을 위해 1단계 구간(광주~강진)에 2056억원이 반영된 상태로, 강진~해남(2단계) 구간도 지난해 9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중이다. 전남도는 1단계 준공 전 2단계 구간의 착공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남권 활성화를 위한 핵심 SOC 시설인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건설도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도입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용역비'(3억원)를 확보하면서 국가 차원의 검토가 이뤄지게 됐다.

전남지역 17개 지구의 국도 시설개량·확장, 신설 사업도 추진된다.

특히 서남해안을 따라 이어진 국도 77호선 단절 구간을 모두 연결하기 위한 ▲신안 압해-해남 화원 ▲여수 화태-백야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적기 준공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들 도로가 개통되면 영광부터 부산으로 이어지는 'L'자형 관광도로가 만들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전남 서남권 혼잡 도로 개선도 추진된다. 압해대교(2009년), 김대중대교(2014년), 천사대교(2019년), 임자대교(2021년) 일대는 연륙·연도교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교통량이 늘어난 상태다.

전남도는 이에따라 압해대교부터 압해읍 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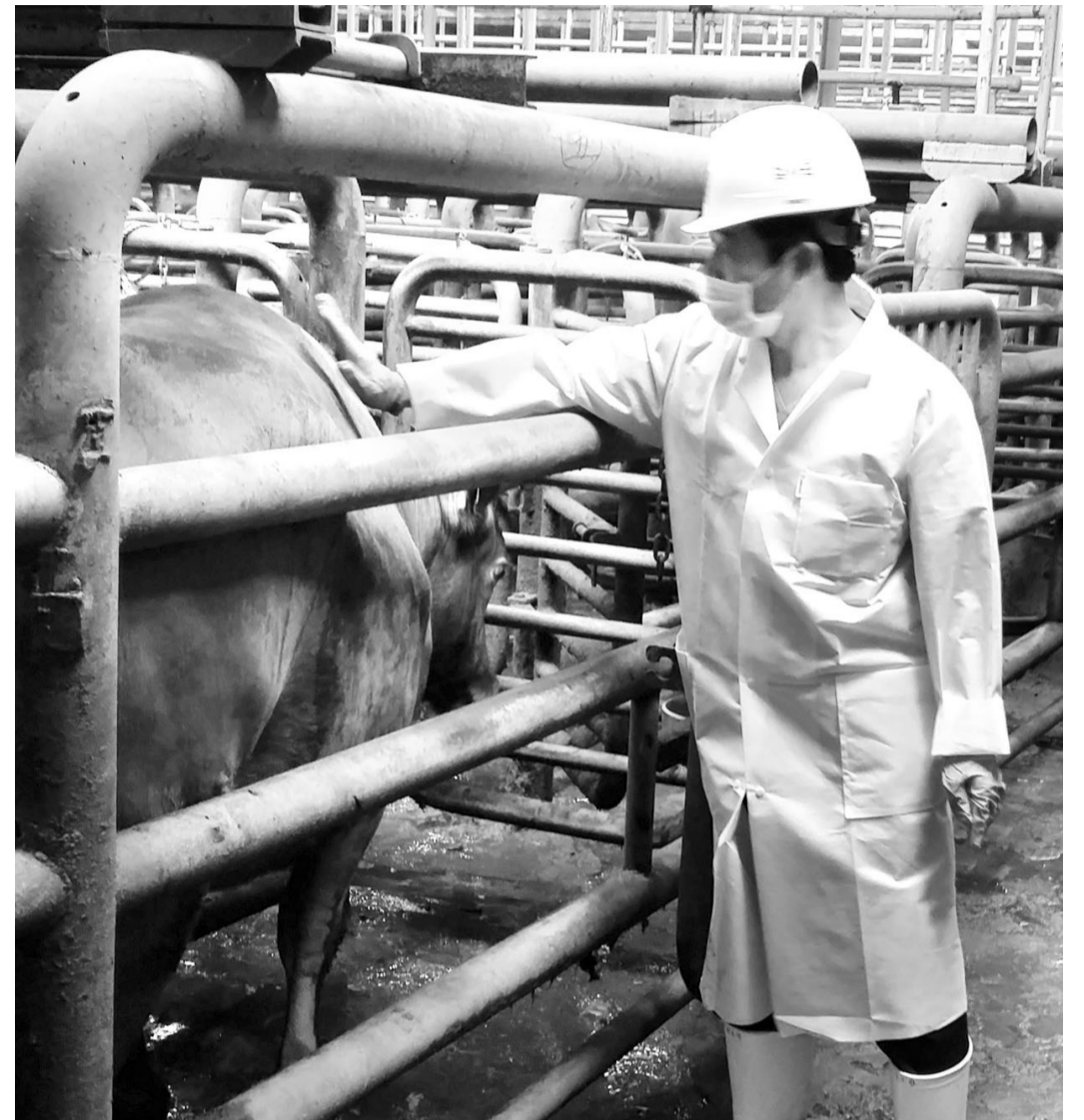
지까지 6km 구간에 대한 4차로 확장 공사와 천사대교부터 추포교 사이 선형 개량 사업을 추진해 교통 흐름 개선에 나선다. 또 무안 현장에서 영광으로 가는 차량과 신안 지도읍으로 가는 차량이 집중돼 상시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무안-해제 2.9km 구간의 4차로 확장 공사도 진행한다.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의 경우 올 하반기 영광 법성-홍농, 나주 남평-화순 구간을 개통하고 순천 낙안-상사, 해남 북평-북일 구간은 오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속도를 높인다. 설계 중인 나주 금천-도암, 장성 동화-서삼, 담양 고서-장평 구간은 올해 발주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국도와 지방도 중간 역할을 하는 국가지원지방도가 모두 개통되면 주요 도시, 공항, 항만, 산업단지, 관광지 등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 기능을 담당해 접근성 향상 및 교통량 분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직 추진할 SOC 사업이 많아 신규사업이 국가계획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 도축장 시간 연장...물량 확보 나서



도축장에 들어온 소에 대한 임상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모습.

2월 16일까지 휴일 도축 시행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가 오는 2월 16일까지 도내 21개 도축장의 도축 시간을 연장하고 휴일 도축을 시행한다.

설 명절을 앞두고 도축 물량이 평소보다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라 소와 돼지 도축장의 도축 시간을 오전 5시로 30분을 앞당기고, 휴

일인 오는 27일과 2월 3일에도 도축하기로 했다.

특히 도축장 자체 위생관리 기준 이행 여부를 엄격히 관리하고 도축장에 들어온 소, 돼지, 염소, 닭, 오리 등 도축 전체 과정에 대해 세밀하게 검사한다. 도축장에서 생산된 식육에 대해 식중독균 등 미생물 검사와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를 2배 이상 강화할 계획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대폭 완화

전남도, 11만1000명 지원...신규 4000명 증가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존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하고 생계급여 지원 수준은 1인가구 기준 월 62만 3000원에서 월 71만 3000원으로 최대 9만 원(14.4%) 인상하고 4인가구 기준 월 162만 1000원에서 월 183만 4000원으로 최대 21만 3000원(13.16%) 인상한다.

의료급여는 중증장애인인 있는 수급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1억 200만~1억 3600만 원에서 1억 9000만 원으로 완화해 의료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도 초등학교생 46만 1000원, 중학생 65만 4000원, 고등학교생 72만 7000원으로 전년보다 최대 7만 3000원 오른다.

전남도는 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에 따른 수급자 수 증가에 맞춰 전년보다 825억 원 증액한 3997억 원(증 26%)을 확보했다.

전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단계적 부양의무자 폐지 등 선정 기준 완화를 통해 2019년 8만 7000명에서 2023년 10만 7000 명으로 23% 증가했다. 2024년에는 신규로 수급 혜택을 받는 대상이 늘어나 4000여 명이 증가한 11만 1000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 청년 농업인 육성·고부가가치 창출 등 미래 농업에 집중

올 역대 최대 1조 2576억 예산 편성

전남의 올해 농업 정책이 청년 농업인 육성, 농축산업 고부가가치 창출 등에 집중된다.

전남도는 23일 역대 최대인 1조 2576억원의 농업 예산을 편성, 고부가가치 창출과 청년농업인 육성, 스마트화·디지털화 등 미래농업 대비에 집중 투자한다고 밝혔다.

우선, 경영비 상승 및 농업재해 등으로 헐거워하는 농업인을 위한 농가 경영안정 대책으로 5793억원을 투입해 ▲소농직불금 단가 인상 ▲보장보험 대상 품목 확대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매년 인력난에 몸살을 앓고 있는 점을 감안, 20억원을 들여 광역형 인력중개센터 신설, 계절근로제 확대 사업 등도 실시한다.

여성·고령농업인 복지를 위한 정책으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과 어르신 체험활동 건강

꾸러미 공급사업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한편, 전국 최초로 난임부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등도 벌여나간다.

미래 성장 산업화 기반 구축을 위해 청년후계농 선발 확대, 전남형 영농 스마트단지 신규 조성 등 청년농업인 육성에 154억 원을 지원한다. 농·축산업의 디지털 경쟁력 확대를 위해 스마트원예단지 기반 조성,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 신규 조성 등도 신속하게 진행한다.

쌀 생산 기반 안정을 위해 가루쌀생산단지, 발작물공동경영체 지원 확대, 가루쌀·논공 전락작물 직불금 단가 인상 등에 670억 원을 지원하고 친환경농업 집적화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전락품목 육성, 유기·무농약 지속직불제 확대, 무기질비료 가격 지원 사업 등에도 517억 원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도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 2차 푸드플랜 종합계획'(2025~2029)을 수립하고 농산물을 제값 받고 파는 유통구조 마련을 위해 지역특화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전락품목 공동선별출하 생산자조직 육성 등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에 64억 원을 투입한다.

전남도는 또 '인공지능(AI) 첨단농산물 융복합 조성', '향토음식진흥센터 설치' 등을 위한 국비 2595억원을 확보하고 정책사업도 적극 권익해 무기질비료 가격 지원(288억원), 시설 농가 면세유유가보조금(70억원)도 지원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올해 확보한 사업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신속·정확하게 추진하면서 미래 농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성수품 가격 안정·전통시장 주차 허용 구간 운영 등 민생 살핀다

2월8일까지 바가지 요금 점검도

전남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사·군과 민생 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전남도는 22일 도청 왕인실에서 명칭한 행정부지사 주재로 22개 시·군 부시장·부군수들이 참여한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도·시·군 부단체장 협력회의를 열고 설 민생안정 등 당면 현안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군

모니터 요원을 활용해 성수품 16종(농산물 4종·축산물 4종·임산물 2종·수산물 6종) 판매처인 재래시장 내 소매점포와 대형마트의 가격 동향 조사를 실시해 공개하는 등 가격 안정 관리에 나서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내 전통시장 60곳을 대상으로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월 3일부터 12일까지 주차 허용구간도 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오는 2월 8일까지 바가지요금(계량 위반, 섞어 팔기, 가격인상), 상거래 질서(가격·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실태 점검도 진행한다. 도는

오는 26일까지 도내 대형마트(25곳), 전통시장(40곳), 판매시설(22곳), 종합여객(27곳) 등 다중이용시설(146곳)을 대상으로 안전 취약 요인 등을 확인하고 비상대응 매뉴얼 등 안전대책 수립 여부도 확인하기로 했다.

도는 아울러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를 상향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의 유통성 지원을 위해 정책자금(4500억원)도 공급한다.

도는 또 설 명절 기간(2월 8일~12일)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해 운영한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교 신춘문예, 미션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밑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지은이 | 조선의
펴낸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